

광주·전남 단체장 후보 남성·50~60대·민주당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모두 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별·성별·연령별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50~60대·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넘치는 반면 여성 후보자와 20~40대 젊은 주자, 야권 후보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5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앙선

목 뚜렷하다.

광주 5개 자치구청장 후보 중 여당인 민주당 소속은 24명으로 무려 92.3%를 차지하고 있다. 동구(4), 북구(4), 광산구(7)는 예비 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 후보 110명 중에서도 민주당 주자가 62명으로 56.4%에 달한다. 민주당은 2위로 광주에서는 1명, 전남에서는 25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

6명, 비율로는 5.4%에 그치고 있다. 나주는 7명의 후보 중 70대가 3명에 이른다.

여성 후보는 광주 3명(동구 양혜령, 서구 김금림, 광산구 윤난실), 전남 2명(여수 김유화, 영암 박소영)에 불과하다.

광주·전남 할 것 없이 여당 소속 50~60대 남성이 지배적이다.

여성·20~40대 젊은피·야당 후보 '기근' 정치 경험·당내 기반·선거비용 등 걸림돌

관위에 등록된 광역단체장 후보는 광주가 5명, 전남이 4명,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광주가 26명, 전남이 110명에 이른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각각 3명이고 광주는 정의당과 민중당, 전남은 민중당 후보가 여러 주자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외부 인재 영입에 올인하고 있다.

여성은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 양향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유일하고 40대 이하는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광주가 2명, 전남이 1명이다.

기초단체장은 쏠림 현상이 더

다. 무소속은 광주 1명, 전남 17명이다.

전남도는 6명의 후보 중 민주당과 평화당이 각각 3명씩으로 수적으로 보면 팽팽하고, 곡성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단 1명(현직 군수)인 반면 무소속 후보만 4명에 달하고, 담양도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3대 3이다.

20~30대 젊은 피는 광주는 동구정당에 도전한 강수훈(34·민주당) 예비후보가 유일하고 전남은 단 한명도 없다.

40대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광주는 3명(남구 김병내, 북구 조오섭, 광산구 임한필)에 불과하고 전남은 22개 시·군 통틀어 고작

지역 정가에서는 20~40대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데다 당내 지지 기반도 약하고 민심은 선거 비용을 부담하기에도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남성 위주 정치환경상 여성의 도전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1년 가까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여당 지지자들의 입후보 러시와 야당 지지자들의 도전 기피 현상이 현실화됐고, 이 때문에 정당별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광주지역의 한 입지자는 "장년과 여성은 지역 정가의 새로운 동력이고, 정당간 견제와 균형은 지역 발전의 촉매제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피도, 정당간 균형도 찾아보기 힘들어 선거 후가 우려스럽다"며 "정치 소외 계층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정당 인력에서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TV토론 '승부처-난타전' 예고

당원 명부 유출 사건·전두환 부역 등 공방일 듯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 주자 3인. 왼쪽부터 가나다순으로 강기정, 양항자, 이용섭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이 본경선의 중요 승부처 중 하나인 TV토론회를 앞두고 긴장 속에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장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공격 대상 단점에 대해서는 인팩트있는 대응 논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출근시간대 이후 오전에 중계되는 토론회의 유·불리도 따지고 있다.

토론회는 16일 오전 9시45분부터 90분 동안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리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인 강기정·양항자·이용섭 예비후보(가나다순)가 참석한다.

3차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경선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유일한 공중과 TV토론회여서 경선 판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는 주말과 휴일, 체육행사 와 도심 축제, 광역·기초의원 입후보자 사무실 개소식 등에 참석해 표발을 일구는 한편 야권에는 캠프 관계자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 TV 토론회 대책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강기정 후보는 "뒤집기 성공", 양항자 후보는 "양항자 불꽃", 이용섭 후보는 "원샷 경선 승리"를 장담하며 TV를 통해 지역민들의 표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특히 강 후보는 광주정신과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고, 양 후보는 '문재인 카드'와 '삼성 고졸 신화'의 주인공을 앞세워 광역단체 최초 여성시장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일자리 경제시장'에 도전장을 낸 이 후보는 자타가 공

인하는 화려한 스펙과 의정 노하우, 정렬성을 집중 부각해 부동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상 밤시간대에 열리는 TV토론회가 출근시간대 이후에 열리는 것을 두고도 "자영업자 흡수" "여성 지지표 확산" "부동층 끌어안기"로 각기 다른 목표를 정하고 있다.

본경선 시작일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토론회여서 난타전도 예상된다. 선거 기간 내내 이슈였던 당원 명부 유출사건과 전두환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근무경력에 대한 실제적 진실과 공방이 우선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또 강 후보의 경우 '강성 이미지' '시민공동정부의 구체적 비전', 양 후보의 행정마일리지와 정치경험 부족, 이 후보는 탈당 전력에 따른 10% 감점 등이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약점으로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반전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은 18~20일, 결선투표는 23~24일 이뤄진다. 관리당원 ARS투표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로 진행되고,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세 후보 모두 공교롭게도 A형에 배우자외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고향은 고흥(강기정), 화순(양항자), 함평(이용섭)으로 각자 다르다. 취미는 강 후보는 등산과 축구, 양 후보는 테니스와 다양한 공부, 이 후보는 글쓰기다.

뉴스

평화당, 광주 구청장·광역의원 9명 1차 확정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광주지역 구청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1차 명단을 확정했다. 구청장은 3명, 광역의원은 6명이 선발대로 나왔다.

15일 평화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오전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6명 등 1차 공천자 9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공천자 명단은 오는 16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동구 김성환(현 동구청장), 북구 이은방(광주시의회 의장), 광산구 이정현(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3명이다.

광역의원 후보는 북구 오동오(북구 문화위원장), 북구 장희연(평화당 광주시당 부대변인), 북구4 장영희(북구의원), 서구3 신태양(전

호남대 교수), 남구3 박춘수(광주시의회 부의장), 광산2 문태환(광주시의원) 등이다.

시당 공관위는 오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31명에 대해 후보자 면접심사를 실시해 2차 공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당 공관위는 2차 추천 공모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실시하기로 했다.

최경환 공관위원장은 "공정한 공천기준을 가지고 시민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공천했다"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 공천, 공정한 당내 경선을 진행해 평화당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당 공관위는 오는 28일 북구3, 북구6 등 8곳의 후보자 선출을 위해 전 당원 투표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

文대통령, 세월호 영결식 불참...외부 일정 최소화

한반도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남북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외부 행보를 최소화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개 일정 없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한다.

16일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식에는 불참하고, 월요일 오후마다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일 세월호 행사 불참은 별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관련 행사에 많이 참석해왔다"면서 "이러한 국무총리가 내일 행사에 대신 참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늘 최고위서 '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 논의

문 대통령 '복심'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의원이 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에 대표는 "조속히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엄중히 대응해 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법계 수석대변인은 15일 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일(16일) 최고위에서 진상조사단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드루킹의 활동

은 물론 수사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댓글 조작 주범 격인 드루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당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현재 확인 중"이라며 "(이번의 일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논쟁을 낸 바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진상조사는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언론을 통



해 아직 혐의 방향조차 잡히지 않는 내용들이 유출됐다"며 "(드루킹과 김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김 의원이 배후인 것처럼 기사화됐고 그것들을 가지고 야당이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더 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뉴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